

# 오픈런·품질...주말 수산물 할인판매 시장이 '들썩'

상품권 환급·제철 수산물 구매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 북적  
"40% 할인...안 올 이유 있나요"

'반값 킹크랩' 도심 대형마트  
매진에 손님 절반 빈손 귀가

"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은누리상품권까지 준다니 오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지난 21일 오후에 찾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동. 제철을 맞은 대하, 꽃게, 갈치 등으로 점포마다 판매대가 꽉 채워진 수산동 내부는 시민들로 붐볐다.

상인과 고객 사이 흥정하는 소리, 지나가는 고객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려는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이 시장 안을 가득 메웠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맘때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제철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가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로 진행되는 '은누리 상품권 환급' 제도가 컸다. 정부는 2만5000원까지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은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다.

시장에서 만난 주부 박혜원(여·59)씨는 "5만원 어치를 사면 2만원을 돌려주는데, 사실상 40% 할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 수산동 내부가 붐비고 있다.

인해주는 격"이라며 "환급 제도가 시작한 9월부터 매주 이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수산물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은 건물 2층 한쪽에서 은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었다. 교환처 역시 줄을 선 채 10분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방문객 황희균(36)씨는 "환급받은 상품권으로 대하와 함께 먹게 채소, 딸이 좋아하니까 과일을 구입하려 한다"며 "요즘 같은 고물가에 꽤 좋은 제도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누리 상품권 환급제도는 시장 상인들의 매출증대에 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상인은 "상품권 환급제도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30%는 늘었다"면서 "평일 환급은 오후 1시부터 가능하다. 시장 내부가 한산하다기도, 오후 1시만 넘어서면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말했다.

수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시작한 은누리상품권 환급제도로 지난 19일 기준 5억 5000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광주 도심 대형마트에서는 수산물 때문에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찾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이마트 광주점 입구는 개점시간인 오전 10시를 앞두고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평소



21일 이마트 광주점 수산물코너 킹크랩 수족관이 품질상태로 비어있다.

와 달리 매장 운영 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든 이유는 킹크랩 할인 행사 때문.

지난달만 하더라도 100g에 1만원 중반대였던 킹크랩을 100g당 5000원대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시민들이 몰려든 것이다.

10시 정각에 맞춰 문이 열리고 수십명의 고객들이 수산물 코너로 향했지만, 이내 이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비쳤다. 킹크랩이 품질되면서 입고되지 않았던 탓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부족해 올 높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킹크랩을 구매하기 위해 주말 아침 일찍부터 마트를 찾았

던 일부 고객들은 매장 관계자에 따지듯 물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 시민은 "킹크랩을 구매하지 못해 아쉽다"며 "하지만 꽃게와 굴, 홍가리비 등 다른 수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마트 광주점은 행사 첫날인 지난 20일에 킹크랩 30마리가 입고됐으나, 고객 60여명이 몰리면서 빈손으로 돌아간 고객이 절반이 넘었다.

이마트 광주점 관계자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다"며 "다음 주 중 400kg를 주문했으니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농협 발전상생협의회 농촌일손돕기

광산구 유계동서 플로깅 행사도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농협 발전상생협의회'와 광주시 광산구 유계동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와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농협 발전상생협의회'는 지역농협·중요농·경제지주·은행·생명·증권·보험·금융 등 광주 관내 각 농협 조직에서 위촉된 2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 위원들은 애호박 재배 농가를 방문해 수확철 부족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으며, 유계동

인근 도로 약 4km의 구간에서 플로깅(plogging)을 실시했다.

일손돕기와 플로깅 행사를 마친 협의회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범 농협 사랑의 1004운동 확대 등 공동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바쁜 일정 중에 농촌일손돕기와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해 준 범 농협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농업인 실의증진에 앞장서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한 범 농협 조직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맥칼 텍사스대 교수 초청 농촌경제연구원 25·26일 기후변화 대응 국제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5일과 26일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인 부르스 맥칼 텍사스A&M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맥칼 교수는 2007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일원이다. 그는 바이오연료의 경제적 영향, 세계적 기후 변화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산림 및 농업 정책 설계, 수학적 프로그래밍 및 리스크 분석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맥칼 교수는 25일 오후 2시 열리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기후변화, 농업 생산성과 적응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대안 중화경제연구원의 린웨이 박사, KREI 임영아 박사가 발표한다. 26일 오후 2시부터는 'KREI 세계화학 세미나'가 열리며 맥칼 교수는 '환경 부문 섹터 모델링을 위한 수리계획법'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 '농협과 구레가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

꾸지뽕 수확 농가 일손돕기도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은 지난 19일 구례군 일대에서 임직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과 구레가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농협 신규직원 교육생 90명과 구례군 관내 범농협 임직원 등 총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직원들은 구례군청에서 구례실내체육관까지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구례실내체육관은 이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경기가 열리고 있어 방문객과 군민들에

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에 앞서 오전에는 농협 신규직원 90명이 곡성군 옥과면과 오산면 일대에서 꾸지뽕 수확과 고추밭 정리 등을 도우며 수확철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데 값진 맘을 흘렸다.

기영은 구례교육원장은 "앞으로 농축협을 이끌어갈 신규직원들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함양하는 기회였으며, 특히 관내 모든 농협조직이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100년 농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